

2023년 03월 1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9편 1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61(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0장 1~11절(구약p.779)

1. 나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달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 자기의 통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 그의 기골이 청년 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 말씀선포 / 악인이 당하는 고통

소발은 욥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는 욥의 주장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이 말한 인과법칙의 논란에 덧붙여 악인들이 마침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십니다. 분명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들에 대하여 현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말해 소발의 오늘 이 말은 온전하신 재판관이 임하시는 주님 재림의 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다면 과연 소발이 말하는 악인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1. 악인은 결국 낮아질 것입니다.

- 소발은 악인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며 인생의 성공을 이루더라도 그것은 잠깐이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달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은 악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부와 명예가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고 그의 자손도 한순간에 걸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사로잡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고,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보시고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왕위를 한순간에 빼앗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먹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악에 대해 경각심을 갖되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러한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신중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에서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악인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누구에게 겨누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칼은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유용한 것입니다. 요리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악한 자, 악한 영에게 향할 때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향할 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무기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나에게 향하여 유익을 도모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무기로 삼아야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향하여 고통을 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은 결과는,

2. 악인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 소발은 욥이 반박하는 모든 이야기를 자신을 힐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욥을 향해 격한 감정으로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 가르칩니다. 본문 9~11절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 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사람이 꿈을 꾸고 나면 그 꿈들이 사라지듯이 악인들도 일찍 죽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육체의 강건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장수를 장담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시편 90편에서 모세도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람은 티끌이 되고 그 생명은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2~7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이처럼 인생은 덧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덧없는 것들에 우리의 힘과 수고를 쏟는다면 마지막에 삶의 공허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7~9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

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며 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깨어 있는 삶이야말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 운동 기구들의 정보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관심이 육신의 건강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의 사명에 동참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평안하고 강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1~34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헌신한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참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천국에 쌓아두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8(통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폐 회 / 주기도문